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지난날 헌정역사상 우리의 정치체제가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체제로, 또 국회가 민주의회로서 발전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표기관이라는 역할보다, 정치권력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하나의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되었다는 인식이 존재해왔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만큼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컸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실천해야 할 책무를 항상 인식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일을 한다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라고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국회와 정치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다 했을 뿐인데, 이번에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19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 된 시점에서, 이 상을 주신 것은 남은 3년 동안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강기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은희입니다.

제19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이어, 헌정대상 수상자로도 선정해 주신 것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와 응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의 평가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년은 부족함과 한계도 많이 느꼈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헌정대상 수상으로 그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앞으로 더 열심히 뚫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행복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의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제1순위는 ‘국민행복’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행복, 청소년들의 행복, 청년들의 행복, 엄마들의 행복 그리고 아빠들의 행복을 하나씩 모아 간다면,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조사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우수 의원을 격려하는 일은 유권자의 권리와 책무를 넘어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좋은 영양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국가기관이나 전문기업이 아닌 순수 시민운동의 형태로 운영되는 단체가 평가를 진행한다는 사실은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평가를 위해 연인원 1,700명이 넘는 모니터단을 운영하며,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늘 초심을 유지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동을 주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6.18.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은희

수상소감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강창일

2013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평소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언제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지역구민 여러분과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운영 여건 하에서도 우리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언제나 발전적인 충고와 비판을 해주고 있으며, 오늘과 같은 결실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기관입니다. 이 같은 국회의원의 본분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국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은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평소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의 본분에 충실하고자 매우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제 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상이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뜨거운 채찍질이라 생각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보다 성실하고 충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2013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을 수상함에 감사드리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길 염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강릉 출신 국회의원 권성동입니다.

먼저, 제19대 국회 1차년도 국회헌정대상 수상식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부족한 제가 훌륭한 의원님들과 함께 수상자로 선정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주고 계신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의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선출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고견을 경청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국회의원 권은희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북구 갑 국회의원 권은희입니다.
19대 국회의 첫 1년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전체의 의정 활동을 꼼꼼하게 평가하는 역할을 맡아주신 법률소비자연맹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헌정대상수상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국회와 지역을 바쁘게 오가면서 다짐했던 여러 결심들과 주민들과 나누었던 많은 약속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처음 먹은 마음이 곧 깨닫는 마음이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처음 국회의원 배지를 달던 그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헌정대상 수상이라는 큰 기쁨 앞에 더욱 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항상 옆에서 성원해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대구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관영입니다.

우선 저에게 이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 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의정 활동 조사·분석위원 등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념과 정파를 떠나 유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준비된 이 헌정대상은 초선 의원인 저로선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군산시민들과, 언제나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초선으로 19대 국회에 입성하여 지난 1년 동안, 선배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어깨너머로 배우며 “어떻게 하면 의정활동을 더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수도 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오늘 받게 되는 이 헌정대상은 제가 의정활동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큰 자신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항상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성실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대 국회 1차년도 국회헌정대상’ 수상소감문

국회의원(안동시) 김광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좋은 분들과 함께 국회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2천여 명의 유권자들과 함께 만들어주신 것으로,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예리하게 감시한 결과입니다. 부족함이 없지 않을 터인데 따뜻한 격려의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주신 상이기에 겸허한 마음으로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가지지 않습니다. 국회헌정대상의 평가항목은 본회의·상임위 출결, 법안발의·투표,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 기본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이나 이 항목들이 평가된다는 것은 아직 국회가 국민들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서 국회에 바라는 것은 단 하나,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 명령을 실천함에 부족함이 있음을 부끄럽게 여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회의원 전원에게 박수를 쳐주는 국회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치열하게 일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바람은 국민들이 정당을 떠나 각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정치성향이나 당은 달라도 국민들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실천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서지 못하였으나 진심을 다해 치열하게 일하는 선배·동료의원들을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성원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안동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8대에 이어, 한 번 더 안동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에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을 압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측필망 겸측필존 盈則必亡 謙則必尊”

‘가득차면 반드시 망하고 겸허하면 반드시 존경 받는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입니다. 항상 겸손 하라는 선현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수상 소감문 -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기현입니다.

초여름의 풋풋한 싱그러움을 품고 있는 6월, NGO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19대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 우수의원'으로 수상하게 된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이자, 포지티브(Positive)운동을 통해 국회의원을 격려하는 활동을 22년동안 전개해 온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헌정대상은 19대 국회에 들어와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로 뛰어다닌 결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신뢰와 격려를 담아 주신 뜻 깊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신문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심부름꾼이 되도록 노력 신뢰받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초의 여성 대통령 시대에 맞춰 국민 행복시대를 구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여러 의원님과 법률소비자연맹,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18일
국회의원 김 기 현

[국회의원 김상희]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김상희입니다(여성가족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본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실시한 19대 국회 1차년도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75명의 우수 의원에 들어 '국회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동안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서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도록 격려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큰 자극제 역할을 해 오신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엄정한 과정을 거쳐 선정한 우수의원에 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19대부터는 국회 본회의 복합재석률, 대정부질문 활동성적, 법률안 투표 참여율,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률, 국정감사 출석률, 국정감사 성적,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한 표결과정 참여 여부,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상정 여부,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성적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계량화하여 분석·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정하고 타당한 공신력있는 수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미약하나마 나름의 최선을 다한 결과가 정당하게 평가받은 것 같아 거듭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직 많은 부족함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난 1년 동안 여성가족위원장이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2년 6월 개원 후 '양육비선지급법안(제정법)' 발의를 시작으로 지난 5월 말 현재 총 28개의 다양한 법안을 발의했으며, 특히 여성가족위원장으로 성폭력 문제를 뿌리뽑고 여성들의 평등한 권익 신장과 행복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이 반영되어 성폭력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것은 역사적인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성실한 출석과 참여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이기에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고 이 점도 이번 수상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짐작합니다.

하지만, 이번 수상의 의미는 단지 국회의원의 '스펙'을 늘리고 치적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정치 발전을 위해 온 몸을 던지고, 국민의 부름에 충실히 답하는 국회의원이 되라는 채찍질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거듭 오늘의 자랑스런 수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민주당 영등포갑 국회의원 김영주입니다.

우선 저를 국회 헌정대상 수상위원으로 선정해 주신 김대인 총재님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회헌정대상’은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상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법안발의건수, 대정부질문, 본회의 출석, 상임위 활동, 발의법안에 대한 책임성, 국감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주어지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저를 지지해 주신 영등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19대 국회에 들어오기 전 영등포구 주민들에게 ‘중앙정치’가 아닌 ‘생활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정치’가 아닌 ‘서민’에 포커스를 둔 국정감사를 수행하려고 노력했고 이로 인해 29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국감우수위원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제게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는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보답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늘 낮은 자세로 국민들 삶에 밀착된 생활정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믿음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영등포구 주민여러분들과 오늘 이 의미 있는 상을 준비해 주신 김대인 총재님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국회의원 김우남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제주시乙 국회의원 김우남입니다.

우선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국회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국회의원으로써 맡은바 책무를 다한다는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임하였을 뿐인데 이렇게 상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객관성과 공신력을 갖춘 국민의 대표단체로부터 받는 상이기에 그 어떤 상보다 뜻 깊은 수상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

아무리 선한 정부도 견제를 받지 않으면 부패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권력을 남용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을 우선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살아있는 민생의 현장에서 국민과 유권자들이 전하는 삶의 요구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의 수상이 국민을 위해, 지역주민을 위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았던 지난날들에 대한 반성과 되새김이라 여기고 의정활동에 더욱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제19대 국회 1차년도 ‘국회헌정대상’을 선정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올바른 정치문화 구현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상의 영광을 국민 여러분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운 인사드립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헌정대상이라는 영광을 주신 법률 소비자 연맹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사법·입법감시, 법률·인권교육, 사법·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전문 시민운동의 모체인 법률소비자 연맹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이자 포지티브운동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그 본분에 얼마나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는지를 격려하고 감시하는 22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단체이며 이 단체를 이끌고 계신 김대인 법률소비자 연맹 총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런 권위있는 법률소비자 연맹에서 주신 헌정대상이라 그 의미는 남다르며 저에게는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묵직한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초선을 거쳐 재선 그리고 지금의 3선의 국회의원에 오르기 까지 오직 초선의 마음으로 겸손하며 부지런히 일을 하여 왔습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대한민국의 당당한 미래를 위해 열심히 지혜를 모으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황소와 같이 앞으로 뚜벅 뚜벅 걸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김대인 총재님이 하신 ‘국가정책과 법안표결 참여는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큰 책무’라는 말씀처럼 의정활동에 충실한, 대한민국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저 자신을 담금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소비자 연맹에서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충고와 격려를 통해 보다 나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희망하며 가장 전통있고 믿음을 갖을 수 있는 국회 NGO단체로 우뚝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부족한 저에게 영광스런 헌정대상을 수상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회의원 김 재 운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정록입니다.

19대 국회 1차년도에 국회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와 본회의, 상임위 회의 등 국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의정활동을 꼼꼼하게 살피시어 국회의 활발한 활동과 역량 강화에 노력하시는 법률소비자연맹과 NGO 모니터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국회는 큰 역할과 권한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국민 여러분께 “일하는 국회”를 표명하며 국회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렸고, 저 또한 그 일원으로써 지난 1년 동안 진정성 어린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장애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며,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장애인 편의시설과 거주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질타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예산의 증액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면 아직 부족한 점, 아쉬운 점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지난 한 해 동안의 노력이, 국민 여러분의 복지 증진에 적게나마 기여했다고 여겨진다면 그보다 감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법률소비자연맹과 NGO 모니터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임기동안에도 초심을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제19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의회 발전에 앞장서 오신 법률소비자연맹의 권위와 전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더 큰 명예로움과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국회에 등원한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소명이 무엇인지 늘 스스로 자문하고 최선의 해답을 찾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현장 중심 정치’라는 의정활동의 대원칙을 세웠고, 이를 지키기 위해 늘 현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이라는 영광도 누릴 수 있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의정활동의 엄격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19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평가받으면서, 남은 기간에 대한 계획과 그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되새겨 봅니다. 국회의원 본연의 사명, 지역주민들과의 약속,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늘 한결같은 관심으로 국회 의정활동의 책임과 성과를 강조해 오신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18일

국회의원 김진태

제 19대 국회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국회의원 김춘진
(민주당, 고창·부안)

무더위 가운데서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 여러분이 흘리신 구슬땀으로 오늘도 대한민국은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인 의정활동을 수행했을 뿐인데 「제19대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노력해왔으나, 부족한 점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스스로를 재점검해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할 기회를 주시고 금번 수상의 기쁨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19대 국회가 어느덧 1여 년이 지났습니다. 총선과 대선을 치루는 데 급급하여 국회가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데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국민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을 흘려듣지는 않았는지 반성해봅니다. 금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매긴 제19대 국회 1차년도 성적이 D학점이라는 점에 대해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으며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19대 국회는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잘사는 농어촌, 그리고 우리 사회 소외된 자를 위해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어민들이 어업용으로 농업기계 사용 시 면세유를 사용하도록 했고,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리 일원화를 통하여 100세 시대 평생교육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인신매매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을 18대에 이어 19대에 재입법 추진한 결과 인신매매 범죄화 법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11년 ILO 협약 비준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

고,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가사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가사근로보호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가사근로자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라는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과 약자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입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월 임시국회가 개최했습니다. 금번 임시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관련 법안 심의 및 국정조사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급한 부분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우리사회의 다수 을(乙)의 마음을 어루만져 눈물을 닦아드리는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책무의 시작은 정당한 입법 활동과 국가기관을 감시·견제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법률 소비자연맹의 금번 평가를 국민여러분이 주시는 회초리라 생각하고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의원으로서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날카롭고 냉철한 눈으로 국회의원을 활동을 감시·평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7대, 18대에 이어 19대까지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국민이 최고되는 정치’라는 기본원칙을 항상 마음에 새겨왔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민의 편에 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 출신 김태원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제19대 국회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2008년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지역구에서 여의도로 출퇴근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 정치무대에 전달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바쁘고 때로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런 노력들이 ‘19대 국회 헌정대상’이라는 뜻 깊은 결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기관이나 언론이 아닌 객관성과 공신력을 갖춘 국민의 대표로부터 받는 상이기에 그 어떤 상보다 뜻 깊은 수상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잘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몸을 더욱 낮추고 결코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성실하게 서민들을 비롯한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18일
국회의원 김 태 원

『대한민국국회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관광 휴양·문화의 도시 경남 거제시 출신 김한표 의원입니다.

먼저 초선의원으로 아직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주관 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로 부터 19대 국회 1차년도 의정 활동 종합평가에서 『대한민국국회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으로부터 『201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에 이어, 금번 『대한민국국회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 큰 기쁨과 함께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낍니다.

저는 지난 국회의원 1년동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순히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지적에 그치지 않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자료집 발간과 각종 정책 토론회 개최, 입법 활동 등 정부부처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실질적인 정책 대안자로서의 감시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2월 11일, 법률소비자연맹과 KBS 9시 뉴스와 함께, 국회 본회의 100% 출석, 100% 재석의원은 300명 국회의원 중 저 김한표가 유일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저 김한표는 이제까지 해왔던대로 『진심의 정치』, 『기본에 충실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항상 국민 여러분들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한 지난 1년 동안의 공과를 짚어, 남은 3년 동안도 최선을 다함은 물론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희망의 정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6. 18

국회의원 김 한 표

헌정대상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현숙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헌정대상’ 수상과 ‘새누리당 최우수 국회의원 5인’에 선정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지난 5월 처음으로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한 해 동안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국민 모두 편하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이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제정안)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육아휴직 제한 연령을 아동 만 6세에서 만 9세로 연장시키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9개 법안을 발의하며 다양한 입법·정책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18대 대선에서 ‘셋째아이 등록금 지원’, ‘여성인재 10만명 육성’ 등 여성 및 보육 공약 마련에 힘을 보태고,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한 여성추진단 단장, 여성문화분과위원을 역임하는 등 보육과 여성정책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NGO모니터단 국정감사우수의원’ 수상, ‘국정감사 친환경베스트의원’ 수상, ‘푸드투데이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으로 3관왕을 차지하였으며 어느새 새누리당의 ‘보육지킴이’란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해 새정부는 무상보육 전면시행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육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국민의 행복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 아주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여러분께서 믿고 지지해주시는 만큼 낮은 자세로 모든 부모가 만족하는 보육 환경이라는 높은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보육지킴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 현 숙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국회의원 김 희 정

안녕하십니까. 김희정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어 ‘국회헌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법률 소비자연맹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음에도 큰 상으로 격려해주시니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다집니다.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국민께 보답하는 길은, 국회의원의 본분을 성실하게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면밀하고 세심한 정책 점검과 입법활동을 통해 민의를 반영하는 의정활동에 힘쓰겠습니다.

저는 정치에 생활을 담아내는 ‘생활정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소임을 다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을 대변하고, 더 낮게 더 가까이 국민께 다가가는 생활정치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속의 문화정착에 주력할 것이며,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양성평등 사회구현과 함께 여성이 안전하고 가족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무한한 지지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 연세 구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꼼꼼한 의정활동 감시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선도하고 계시는 법률 소비자연맹에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헌정대상」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나성린

제19대 국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뜻 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뜻 깊은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2,716명의 모니터 요원, 각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재래시장 활성화 및 서민주거환경 개선, 개인택시 지원, 서민금융기관 지원을 위한 법률안 발의를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입법활동을 활발히 펼쳐왔습니다. 또한 예결위 활동을 통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여야 6인협의체 구성의 주역으로써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고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이러한 노력들을 인정받아 이처럼 뜻 깊은 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쌓아온 정책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생 현장에서 국민과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국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거듭 제1회 국회헌정대상 수상자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더욱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뜻을 섬기며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잃지 않고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동구 갑 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 류성걸입니다.

19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어느덧 일 년이 지났습니다. 저 스스로도 지난해 이맘때의 각오와 포부, 그야말로 초심에 대하여 다시한 번 생각하고 돌아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지난 1년의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의정목표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2012년 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우수위원’ 선정에 이어 이번 ‘국회헌정대상’ 수상은 외람되지만 저의 의정활동에 대한 가늠자가 되고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고생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과 보좌직원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대구 동구 주민 여러분들과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매사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6.

대구 동구 갑 국회의원 류성걸 올림

제19대 법률연맹의 국회헌정대상 수상소감

존경하는 법률소비자연맹 여러분, 2012년에는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주셨는데 또 이렇게 국회헌정대상까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선으로서 부족한 의정활동을 좋게 보아주시고 높은 평가를 해 주셔서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유아교육자로 활동하다 잡지 언론인이 되었고 유아교육전문지 발행사의 경영자이자 여성경제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유아교육전공으로 학위를 받아 보육시설까지 설립·운영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선족의 낙후된 유아교육을 후원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고, 사단법인 한국유아교육인협회 설립과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등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경험과 활동 속에서 보고, 느끼고, 터득한 것들이 이번 의정활동에 기여한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열정을 보태어서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급격하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상보육의 확대뿐만 아니라 보육시설과 유아교육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서 질 높은 교육환경을 만들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공감대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에 첫발을 내디뎠던 저의 목표를 늘 되새기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향후 의정활동을 할 때마다 이 상을 받은 기쁨을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끝으로 법률소비자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내외귀빈들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9대 국회 1차년도 ‘국회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의 객관적 평가를 진행하신 법률소비자연맹의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조사와 분석에 참여하신 1,716명의 모니터위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 의정활동을 종합적인 지표를 통해 분석하여, 국민에게는 알 권리를, 국회의원에게는 격려와 질책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국회 헌정대상 수상은 국민이 늘 제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앞으로도, 국가 현안에 대한 지식, 국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니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18일(화)
대한민국 국회의원 문정림

민병주의원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민병주입니다.

먼저 19대 국회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격려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3월 새누리당 공천 후 “과학자가 정치하니까 신뢰가 간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소감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국회 등원 후 1년여 동안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오늘의 수상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짚어보고 반성해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수상 소식을 접했을 때는 놀라기도 했지만, ‘국회본회의 복합재석률’, ‘법률안 투표 참여율’,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률’, ‘국정감사 출석률’ 등 13개 항목의 객관적 평가지표를 통한 종합평가에서 295명의 평가 대상 의원 중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는 사실에 한편으로는 뿌듯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 본회의 재석률 87%로 상위의원 10명에 포함된 것을 이번 평가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어 무척 기뻐합니다.

저를 믿고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으로 뽑아주신 새누리당과 과학기술계와 국민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자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과학기술계와 국민 여러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기본과 상식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으로서 남은 임기를 보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민현주

먼저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국회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은 이제 막 국회에 입성한 새내기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연구자로서, 학자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바라왔던 다양한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입양제도를 비롯한 아동정책의 개선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 기금의 예산투명성 확보 등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였고, 여성가족위원으로서 여성가족 정책, 특히 일·가족 양립과 아동안전에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돌아보면 1년이라는 시간동안 노력의 결실을 맺은 것도 있는 반면, 여전히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 상을 주신 이유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매진하라는 격려의 의미일 것입니다.

처음 국회에 입성할 당시 저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길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알맹이가 짙은 찬, ‘컨텐츠가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각오를 날마다 되새기며, 앞으로도 항상 공부하고 성실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상에 감사드리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민주당 박기춘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사무총장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입니다.
먼저 과분한 평가와 더불어 명예로운 헌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법률 소비자 연맹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더 이상 정치가 국민의 조롱과 외면의 대상이 아닌, 존경과 신뢰를 받는 국민의 희망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무너진 원칙과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에 19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대표를 역임하며 의원들께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 등 기본적인 부분을 강조해 왔습니다. 작은 실천과 행동 하나가 신뢰회복의 첫 걸음임은 두 말 할 나위 없습니다.

본 수상을 계기로 국회가 바로 선 원칙과 기본의 바탕위에, 늘 깨어 있는 과수꾼으로써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양질의 정책을 생산해내는 국민의 국회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게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법률 소비자 연맹의 위대한 발걸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수 상 소 감 문

< 2013년 헌정대상 수상 >

안녕하십니까. 울산 북구 출신의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제가 최고의 법률전문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연맹 관계자 분들과 평가에 애써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5월 30일 시작된 제19대 국회가 어느덧 1년여가 지났습니다.

그간 저는 ‘국회 정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경제·금융관련 정부부처에서 30여년간 봉직했던 경험을 살려 어려운 서민 경제를 안정시키고, 소위 갑-을 관계로 대표되는 불공정거래 행태를 바로잡아 경제적 약자가 보호받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새누리당 울산광역시당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해온 산업수도 울산이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끄는 힘찬 동력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비록 1년여의 짧은 기간이지만 처음 국회에 등원할 때 가졌던 “국가와 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정치”이라는 정치적 신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여러 의정활동이 권위 있는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의 인정을 받아 영예로운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하고 올바른 정치로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10일
국회의원 박 대 동

국회의원 박민수(진안·무주·장수·임실)

헌정대상을 수상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헌정대상의 수상은 진안·무주·장수·임실지역 주민들의 성원 덕분입니다.

또한 성실하고 묵묵히 수행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쁠 따름입니다.

무엇보다 연인원 1716명의 모니터 위원이 꼼꼼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시상하는 것이니만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평가는 법안발의, 국회 회의 출석,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성적 등 13개의 다양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국회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헌정대상은 단순히 의정활동 1년을 평가하여 주는 ‘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정대상을 통해 국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에 맞춰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국민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견제 없이는 국회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정부와 사법부에 의해서도 견제되지만 무엇보다 가장 효율적인 견제는 시민단체에 의한 견제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이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헌정대상은 의원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격려 역시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격려에 부응하여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발로 뛰는 젊은 일꾼 **박완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TEL

02-784-7560 FAX 02-788-0211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858 거성캐슬 201호

TEL 041)555-0411

FAX 041)557-0411

배포일 2013년 6월 10일(월)

담당자 : 안석준 비서

010-3714-0852

매수 총 1매

제19대 국회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는 젊은 일꾼’ 민주당 천안을 박완주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22년 전통의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19대 국회 1차년도 ‘국회 헌정대상’ 수상 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초선의원으로 그동안 모두 7회에 걸쳐 각종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우수의원 상을 받고 이번이 8번째 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믿고 뽑아준 시민들을 위해 앞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긴급히 풀어야 할 당면 과제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끝없는 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증폭시키는 ‘원전납품비리문제’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하여 관련자들은 엄벌에 처하고 비리를 척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남양유업사태로 인해 불어진 갑(甲)의 횡포를 막겠습니다. 최근 납품대금 지급기일 단축과 가맹점주들의 보호 등을 위한 경제민주화 5종 세트법을 발의 하였고 민주당 ‘을 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에 가입하여 ‘남양유업 방지법’, ‘OJ방지법’, ‘을지로 3법’ 등 16개 핵심 입법과제를 선정하여 건전한 기업문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TA재협상 문제, 개성공단 폐쇄 문제, 수도권규제완화 문제, 가스요금인하와 천연가스 직수입 문제 등은 국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와 기관에 대해 냉철히 감시하고 비판하여 잘못된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바로 잡아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동각득심’ (動脚得心: 발로 뛰어 민심을 얻어 내겠다)을 잊지 않고 국민들의 안전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일정 속에서도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한 모든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끝)

국회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국회의원 백재현

경기 광명갑 출신 백재현 의원입니다.

제19대 국회 1차년도 국회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광명시민들과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수고하신 법률소비자연맹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정대상은 국감성적 외에도 법안 발의, 본회의 출석 현황, 상임위 활동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주어지는 상인만큼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은 재선의원으로서 맞이한 첫 번째 해였습니다.

재선의원이 된 만큼 국민 여러분들에게 더 나아진 의정활동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 첫해에는 안전행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하게 되어 한부분이라도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이렇게 귀한 상을 받게 되니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이번 국회 헌정대상 수상을 계기로 19대 국회 의정활동에 있어서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다잡고,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제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최우선으로 힘쓰겠습니다.

시민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의회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법률소비자연맹도 더 큰 발전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9대 국회 헌정대상 수상 소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신경림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충실함을 평가하고 시상하는 국회헌정대상에 선정되어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문보건의료인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진한 지도 어느덧 일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모든 문제와 해결책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보건복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작은 소리들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성과에 비하면 과분한 상이지만 더욱 최선을 다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변함없는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항상 낮은 곳을 향하고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흘러가는 물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대한민국을 두루 살피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서울 강동갑 출신 신동우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헌정대상’이라는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긴박한 국정감사 일정동안 호흡을 같이 하며 의정활동을 지켜보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특히, 저에게 2012년은 잠시도 쉴 틈 없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 국회에 등원하여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느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중소기업의 골목상권 보호 등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수많은 현안들.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해야 하는데 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고 보조금 사업의 폐해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 앞에서 초선의원으로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한결같이 지지해주신 국민들과 강동구 구민들이 계셔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었고, 그 결과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몇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것과 중소기업, 영세사업자와 같은 경제적 약자에게도 경제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뉘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리하여 국민들께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이 목표들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국회헌정대상’ 수상을 힘입어 한해 한해 가시적 성과를 거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법률소비자연맹과 수고하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그리고 저를 지지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날마다 발전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신동우

<제19대 국회 1차년도 국회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법률소비자연맹 국회 헌정대상’ 선정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법률소비자연맹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양승조입니다.

우선 지난 ‘201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및 3개년 국회 헌정우수상’에 이어 다시 한번 ‘2013년 제19대 국회 1차년도 국회 헌정대상’에 선정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좋은 평가를 내려 지난번보다도 더 큰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회원 및 국정감사 모니터링 위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헌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성실성, 전문성, 충실성에 대한 종합적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시상하는 상으로서 유서가 깊고 명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도 수상의 영예는 더욱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밀하고 공정한 평가가 국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2013년은 어느 때보다도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최근에 남양유업사태를 계기로 수면위로 올라온 ‘갑-을 관계 해결’, 정치민주화에 뒤이은 ‘경제민주화의 정비’,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복지정책의 확대’ 등 많은 쟁점적 사안들이 국회에 산재해 있습니다. 제가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라는 채찍질로 여기고, 국회의원으로서의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저 할 일을 다 했을 뿐이지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남아있는 19대 국회 임기동안, 처음 국회 의원에 당선되었던 마음가짐으로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남과 천안의 품격을 드높이는데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국회 헌정대상’에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법률소비자연맹에도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양승조

국민과 함께 희망을 꿈꾸는 정치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국회의원
(민주당, 서울 강북구 갑)

법률전문NGO인‘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지역구민 여러분께서 주신 사랑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번 수상은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라는 채찍이자 격려라 생각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실한 의정활동만이 국회의원을 선출해 주신 국민여러분의 뜻을 받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법안을 발의하여 불합리한 법체계를 개선하고,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정부가 민의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결산 심사를 통해 나라의 살림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에 항상 게으름 없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거 몸싸움과 날치기로 대변되던 국회의 구태의연 때문에 국민여러분께 불신과 실망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일 잘하는 국회, 솔선수범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모든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가 쉽 없이 1년을 달려오는 동안 때로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려 국민여러분께 따끔한 질책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몸싸움과 날치기는 한 번도 없었고, 정책과 토론을 통해 올바른 정치의 모습을 이룩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을 위한, 국민의 고충을 내 일처럼 함께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태도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일까 깊이 고민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려 노력하겠습니다. 그저 보여주기식의 활동이나 정쟁이 우선되는 의정활동은 결국 정치인의 앞날을 가로막는 벽이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는 올바른 정책에 대한 실천이 있고, 변화를 통해 국민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의견을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자 소통의 창구로서, 국민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꿈꾸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오제세 의원입니다.

먼저 국회 헌정대상 시상식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자리를 준비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의 잘못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또한 국회 및 지방의회, 사법기관 등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시민’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왔습니다. 그동안의 발자취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을 동시에 충족하는 ‘20-5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선진국을 제외하고 20-50 클럽에 가입한 국가로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세계 최고의 자살률,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 최저 출산율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국민들의 삶은 그 어느 때 보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15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세계 최고의 소득 불평등 국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국가에서 일반 국민들은 불행한 현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성장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부분이며, 여기에 국회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는 노인,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합니다. 지금 소위 부유층의 이익은 과다대표 되고, 서민층 이하는 과소대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발의, 본회의 출석과 투표, 상임위 활동, 국정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표하는 것이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일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의 ‘기본’을 지켜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들은 복지국가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심화되는 양극화에 상처받은 국민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지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는 폭증하는 의료비 대책,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공공의료 강화, 국민연금 고갈문제와 개선방안, 노인 일자리 만들기, 무상보육 정착, 기초노령연금 인상, 장애인연금 현실화, 복지인력 처우개선 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전달 체계와 재정의 틀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기본적인 복지가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소비자연맹과 정책적 소통을 활발하게 이어가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국회가 정쟁이 아닌 정책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관계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상은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와 채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축제’인 국회 헌정대상 시상식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우윤근(전남 광양·구례)입니다.

우선 ‘제19대 1차년도 국회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크나큰 영광입니다. 금번 시상을 위해 노력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2년 전통을 가진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민 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법률소비자연맹은 의정 활동 감시, 법정 모니터링과 같은 사법기관에 대한 건전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여 사법정의 구현에 힘써왔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법 지식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지원단 운영 등 우리 국민이 법에 좀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률소비자 연맹이 주관하는 국회 모니터링은 해가 지나갈수록 평가방법의 계량화, 다양화를 통해 그 어느 단체가 주관하는 평가 시스템보다 뛰어난 객관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소비자연맹이 시상하는 국회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더불어 본 상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더 정진하라는 의미로 주신 것으로 알고 그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며 좀 더 국민 곁으로 다가가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깨어있는 국민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민이 깨어있다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고 정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혼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십시오. 달게 받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우윤근 올림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신뢰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다시 거듭 나겠습니다.

제 17, 19대 국회의원

유 기 홍

22년 전통을 자랑하는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시는 국회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처럼 뜻 깊은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늘 제 의정활동을 지켜봐주시며 아낌없는 격려와 쓴 소리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민주화 · 민생 안정 ·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어느 때 보다 드높았던 지난 해, 바른 정치에 대한 소명의식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19대 국회에 등원했습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에 이어 다시 교육 상임위를 맡아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2년) 간사로 활동하면서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특히, 전국 15만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분들과 지나친 입시 경쟁에 내몰려 힘들어 하는 우리 아이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에서 ‘을’의 처지에 놓여 고통 받는 모든 분들이 제 의정활동의 유일한 지침표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교육공무직 법안을 만들고, 자율형 사립고와 국제중학교 등 서열화 되어가는 학교들을 점검했습니다. 3천 가지가 넘는 입시전형으로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파행적 대학 입시제도, 사학분쟁조정위의 독단과 비리사학의 복귀, 교육복지의 후퇴 등 모두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후퇴해버린 우리 교육의 문제들을 다시 바로 잡으려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한,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안전이 달려 있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관리를 철저히 감시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선인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기초과학 국회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성폭력 사건에 대처하는 정부의 허술한 행정시스템을 지적하고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19대 국회의 첫 해를 지냈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으니 늘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족한 저를 항상 믿어 주시고 저의 의정활동이 곧 자신의 희망이라며 응원을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로 인해 저는 언제나 든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쉬지 않고 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헌정 대상이라는 의미 있는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헌정 대상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에 걸맞은 의정활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상 소감문

정치인의 정명(正名)사상

국회의원 유승우 (새누리당, 경기 이천)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에서 지난 '2012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이어 제19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대한민국 국회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에게 깊은 불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인이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풍자와 불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초선의원으로서 새 정치를 구현하고자 노력 해 왔습니다.

일찍이 공자는 논어에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라는 말을 통해 정명(正名) 사상을 설파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르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그 이름을 바로 세우는 것이며,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준 유권자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수상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국민들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참 일꾼, 더 나아가 국민들이 정치를 신뢰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고자 더 연구하고 더 노력 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 06. 10.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19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았던 초선의원으로서의 첫 1년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의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헌정대상은 객관성과 공신력을 갖춘 국민의 대표단체로부터 받는 상이기에 그 어떤 상보다 뜻 깊은 수상이라 생각합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을 이끄는 주관단체로서 평소 우리 국회에 대한 꾸준한 분석과 격려를 통해 국회의원의 충실하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이끌어내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의 활동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는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농업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지난 1년간 농수축산업은 민족 산업이자 생명산업임을 각인하고 농수축산인들의 현장을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각종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비판보다는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했고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마련을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더욱 많습니다. 헌정대상을 주신 의미를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잘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농축수산업이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내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닿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윤재옥 의원>

지난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에 이어 이렇게 제19대국회 1차년도 ‘국회헌정대상’까지 받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겠다는 저의 한결같은 다짐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한 보람을 느낍니다.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의원으로서 지역활동은 물론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발의, 국가기관 감시견제를 위한 조사·감사 등은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책무와 본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저에게 주신 헌정대상은 남은 임기동안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지난 1년과 같이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국민들의 격려와 응원이라 생각합니다.

각종지표들이 올해 한국경제가 더 어려워 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대변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한걸음이라도 더 뻗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내실있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에게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대구 달서을 지역주민 여러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국회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서울 노원갑 출신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입니다.

우선 지난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에 이어 다시 한 번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법률소비자연맹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국회헌정대상은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 결과한 지표에 근거해 선정된 상으로 국회의원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 가운데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격려와 신뢰의 뜻으로 주신 상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의지와 각오를 새로이 다지게 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쇄신과 민생안정이라는 국민적 열망과 함께 시작된 제19대 국회도 벌써 1년이 지나갑니다. 34년간 행정가로서의 경력을 되살려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국민께 보답하는 길은 그저 성실히, 충실히 본분을 지켜나가는 것이라 여기고 묵묵히 이를 실천해 왔습니다.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했고, 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입법활동으로 34건의 법률안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이 중 7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으로 재건축 허용연한이 지나지 않아도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안전진단을 통해서 재건축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을 개정해 터널과 다리, 건물 등 주요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나 E 등으로 불량한 경우,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즉시 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315건의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둘째, 정치·경제, 외교·안보, 교육·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 3회에 걸

쳐 대정부 질문을 실시함으로써 주요 국정과제와 긴급현안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 「노후·불량주택 재건축활성화」, 「해외건설 산업 활성화」, 「건축복지정책」 등 총 6번의 대토론회를 주최함으로써 주요 정책을 공론화시키고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며,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셋째,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NGO 시민단체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부채가 심각한 공기업들의 방만운영과 호화 신청사 건립 문제 등을 지적했고, 경전철 노선의 적자 문제에 대해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한과 책임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각오로 민생정책에 최대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오늘 수상의 영광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 같아 감회가 참으로 남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민생안정과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제 사명을 충실히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믿고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늘 성원해주시는 노원구 지역주민들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민생을 위해 일하겠다던 초심 변치 않고 국민의 삶과 지역의 현안을 더욱 깊이 있게 고민하고 살피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10일

국 회 의 원 이 노 근

국회 헌정대상 수상소감

안녕하세요. 민주당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이미경입니다.

먼저 19대 국회 1차년도 ‘국회헌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은 다년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며 누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하니 어느 때보다 수상의 기쁨이 큼니다.

19대 국회가 개원 된지 1년이 됐지만, 지난 1년은 대통령 선거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예년에 비해 충실하지 못했다는 각종 단체의 평가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권한과 책임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성실하게 이행해야 함에도, 19대 국회에서 지난 1년간 민의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는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많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회헌정대상으로 격려해 주시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 번 법률소비자연맹과 국민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률소비자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헌정대상 수상소감

민주당 국회의원 이연주(보건복지위, 운영위)

안녕하세요. 민주당 경기 광명(을) 국회의원 이연주입니다.

우선, 오늘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상식이 통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사회안전망이 마련된 나라, 최소한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를 꿈꾸며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 간,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용품의 안전관리 강화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 대표발의 37건을 포함한 총 136건의 법안을 발의 하였으며, 성실한 본회의 출석 및 상임위 활동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국감 NGO모니터링단’이 뽑은 2012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이어 대한민국 국회헌정대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한결같은 자세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수상이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스스로 평가하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더 의정활동에 매진해 국민 여러분의 가까이에서 희망의 울타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써 국회가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실히 의정활동에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공정한 눈으로 지켜봐 주시는 법률소비자연맹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좋은 동반자이자 감시자로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입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20년 이상 평가해온 법률소비자연맹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엄격한 심사평가를 거쳐 국회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영광입니다.

본 의원은 1년간 15건의 민생법안을 대표발의하여 5건의 입법을 실현시켰습니다. 특히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대표발의를 통하여 고령화시대에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고 근로자의 숙원인 ‘정년 60세 연장’을 실현시킨 것은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에 충실히 참여하면서 국민세금을 제대로 정부가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등 국민이 주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행복을 위한 법률제도 개선이나 상임위활동 및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있어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항상 헌법과 법률의 수호를 위해 힘쓰시는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과 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 완 영

[국회헌정대상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이윤석입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초여름의 시작입니다. 먼저, 부족한 사람에게 국회헌정대상의 영예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9대 국회 개원 1년차를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국회의원들이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도록 큰 역할을 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1년 동안 300명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하느라 고생하신 연인원 2천 명의 모니터요원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제19대 국회에 재선으로 들어오면서 처음 맡는 국토해양위원회의 민주당 통합당 간사를 맡았습니다. 많은 부담과 책임감 속에서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하겠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그 초심을 지켜서인지 제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연말에는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우수의원 수상자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1년을 결산하는 평가에서 국회헌정대상까지 받게 되어 그 의미가 매우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고생하신 2000여 명의 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에 더욱 힘을 받아 남아있는 임기 의정활동에 오직 국민의 편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전남 무안·신안 국회의원 이윤석

국회헌정대상 수상소감문

국회의원 이자스민

안녕하십니까? 외교통일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이자스민의원입니다.

먼저, 국회헌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관계자 분들과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19대 첫 상임위를 치르던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귀화인 국회의원’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첫 상임위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감으로 다가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과 의무감이 우리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이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조금이나마 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이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불편한 현실들이 우리 모두의 노력 속에 조금씩 나아져 대한민국 사회가 성숙한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수상은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축하의 의미보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격려의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사회의 통합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상의 영광을 주신 NGO모니터단의 모든 관계자와 국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언제나 늘 처음처럼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정대상 수상 소감

2013. 6. 10.

국회의원 이재영(새누리당 비례대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19대 국회를 등원한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난 현 시점에 이렇게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년여의 시간은 대선과 새정부 출범이라는 큰 정치일정으로 국회의 역할이 다소 부각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많은 선배·동료의원님들은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많은 개혁입법을 발의하며 시대적 요구와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1년이었습니다.

저는 19대 국회의 초선이며 청년비례대표의원으로서 활동하며 청년층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년창업을 위해 3차례의 입법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지를 모아 새로운 입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 지원법』을 대표 발의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이 군복무기간을 합산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 21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개혁입법 발의에 저 또한 일조하였다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저의 역할을 다 하였을 뿐인데 이렇게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저 자신은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 아직은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오늘을 기회로 저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더욱 좋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질책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오늘의 이 수상이 앞으로 더욱 분발하라는 회초리로 알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입법안을 마련하는 등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대 국회 1차년도 국회헌정대상’수상을 준비하신 ‘법률소비자 연맹’ 등 관련 시민단체의 노고와 수고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재영

국회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부산 동래 출신 이진복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주신데 이어 이렇게 귀한 상을 주시는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수상의 영광을 안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8대에 이어서 19대 국회에서도 연속으로 국회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니 그 동안 ‘서민과’와 ‘경제적 약자’를 위해 의정활동을 했던 순간,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오늘 수상의 기쁨을 동래구민분과 저를 성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길 희망합니다. 더불어 오늘의 수상이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노력하겠습니다.

19대 국회 헌정대상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법안발의,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상임위 활동 등을 종합 평가 제량화해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소비자 총연맹 여러분들께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덕분에, 국회가 행정부 견제기능을 하는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가발전을 위한 법률소비자 연맹의 끊임 없는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회헌정대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국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진복

국회 헌정대상 수상소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석입니다.

이런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헌정대상은 시민들께서 직접 평가하고 주신 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이라 여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전 전월세 상한제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패널 중 앓던 청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청년이 속한 ‘민달팽이’이는 민달팽이와 같이 집이 없어 반지하와 고시원을 전전하는 청년들의 고된 주거실태를 호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그는 “창문이 있는 방, 곰팡이 걱정이 없는 방”에서 사는, 소박한 꿈을 꾸는 청년들을 얘기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에게 임대주택 지원 및 독거 청년의 대출 기준완화 그리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월세 상한제를 정해 달라 부탁했습니다.

오늘 제게 주신 이 상의 의미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민달팽이’들이 짚어준 삶의 무게를 나누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대형마트 규제법안, 재벌 총수 봐주기 근절법안 등 경제 민주화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소외된 수많은 민달팽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오늘 수상을 계기로 국회의원로서 기본적 역할을 되새기겠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아픔을 듣고 이를 해결하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을 만들겠습니다.

법률 소비자 연맹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어귀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사법정의는 좋은 정부의 가장 튼튼한 기둥입니다. 그 기둥을 세우기 위해 매 순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 춘 석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부산진구를 출신 이현승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19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알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2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국회헌정대상 수상 의원 선정 등 포지티브운동을 통해 올바른 정치 구현에 앞장서온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과, 이번 수상자 선정을 위해 모니터링, 조사, 분석을 통한 정밀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애쓰신 2,716 명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입법기능을 수행하며,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담당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만큼 국회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정무와 행정, 입법을 아우르는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제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해 오면서, 초선의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수상은, 이와 같은 각종 법안의 제정과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에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과분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여야하는 일을 하였을 뿐인데, 이처럼 영광된 상을 주신 NGO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현승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수상소감

국회의원 이 현 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경기도 하남 / 새누리당)

새누리당, 경기도 하남 출신 국회의원 이현재입니다.

먼저, 역사가 오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제정한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특히 19대 국회 등원후 첫 1년 동안 국회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한 결과로 선정한 것이기에 더욱 기쁩니다.

저는 19대 국회 등원 직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는 두가지 정책 아젠다를 설정하였고, 항상 이 분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중소기업이 당당히 경쟁해 글로벌 강소기업을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자”는 목표로 일관되게 노력해 온 것을 국민들이 높게 평가해 주신 덕분에 오늘 ‘헌정대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갑을간 불공정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하도급법안,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소상공인 진흥공단 및 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법안,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실효성 있게 바꾸는 법안,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업의 구매비율을 의무화하는 법안, ▲중소기업 R&D를 확충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법안들, ▲대학의 창업기지화를 통해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법안 등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거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고 국회에서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첫 1년 평가로 주신 헌정대상을 “상”인 동시에 곧 “채찍”이라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국민경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지키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입법과 정책으로 19대 국회에서 가능한 많은 국민들의 손톱 밑 가시를 빼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헌정대상’으로 선정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19대 국회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여러분의 뜻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대 국회 대한민국 헌정 대상 수상 소감

국회의원 張倫碩

안녕하십니까? 경북 영주 출신의 장윤석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 참여를 통한 사회정의 실현과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서 오신 '법률소비자연맹'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제19대 국회 헌정 대상'의 영광을 주신 대한민국헌정대상위원회, 그리고 늘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로 보드나온 의정활동을 독려하고 계신 김대인 총재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19대 국회가 개원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평가받는 오늘의 뜻깊은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2012년 세 번째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에 들어서며 다짐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현장 중심의 정책 활동을 펼치겠다'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생활 터전에 직접 찾아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보고, 듣고, 느끼고 대안을 제시하는 '필드형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이지만 늘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을 좋게 평가해 주셔서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00% 국민 행복 시대'가 도래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먼저 다가가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민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이번 '헌정상' 수상을 국민의 일꾼으로서 더욱 노력하라는 채찍과 격려의 뜻으로 받들어 나라와 고향 영주의 발전을 위해 쉼없는 그리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함께 수상하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사랑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께 수상의 영광을 돌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회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13.6.10)

<정문헌 의원>

민의의 전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에 앞장 서 나아갈 것

- 의정활동은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 민의의 전달자로서 매순간 최선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을 뿐인데 귀한 상까지 받게 되어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 지난 한 해는 대선과 총선, 글로벌 경제위기 등 변화와 위기가 이어지며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 올해는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기대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국가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9대 국회가 시작될 때만 해도 많은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했으나, 현실의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성실히 의정활동에 앞장 서 나아가겠습니다.
-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욱 더 배려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새누리당 경주 정수성 의원입니다.

제19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국회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부족함이 많았던 의정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이번 수상은 국회의원의 법안발의, 본회의 출석, 상임위 활동, 국정감사 성적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객관적·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뜻 깊습니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매니페스토 운동·국회 의정활동 평가’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과 내실 있는 국회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데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경제민주화, 대·중소기업 상생, 사회 양극화 등 산적해 있는 사회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신뢰 받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민생우선의 생산적 국회, 일하는 국회로 하루 빨리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성실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야말로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이 국민을 위해, 지역주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임기 내내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06월 11일

국 회 의 원 정 수 성

<법률소비자연맹 선정‘헌정대상’ 수상 소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22년 전통의 법률전문NGO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이번에 평가, 발표한 ‘헌정대상’은 19대 국회 1년간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활동, 법안 발의 및 투표 참여 등의 입법활동 뿐만 아니라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성적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까지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한 것이어서 수상자로서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이런 귀한 상까지 받게 되어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생각하며 남은 19대 국회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헌정대상’시상을 위해 전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하나하나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계량화하여 분석, 평가하느라 많은 땀을 흘리셨을 법률소비자연맹 활동가 분들과 모니터단의 노고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이 대한민국 국회의 발전과 국회의원의 역량 강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국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헌법정신의 구현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6. 18.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정청래(서울 마포을)

제19대 국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정희수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소중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5월, 제19대 국회 개원 후 1년여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소중한 결실을 맺는 듯해 기쁘고 뿌듯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이 한편으론 쑥스럽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는 270여 시민 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국회의장 주관의 국회의원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지난해 말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전문성을 입증 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9대 국회 개원 후 1년여간 70여건 이상의 법안을 대표발의 해왔으며 국회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시에도 충실하고 성실히 일하는 신뢰받는 국회의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의 대표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힘써 정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선량으로서 오늘 의 수상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평가에 애쓰신 법률소비자연맹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향후에도 시민사회의 성숙과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 6. 18

국회의원 정 희 수 (새누리당, 경북 영천)

[제19대 국회 1차년도 국회 헌정대상 수상 소감]

국회의원 주승용(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22년 전통의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에서 선정하는 제19대 국회 1차년도 국회 헌정대상 수상은 국민의 선량(選良)인 국회의원에게 무한한 영광이자,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회 헌정대상은 국민 여러분께서 전해주시는 신뢰와 따뜻한 격려로 생각합니다.

저는 제19대 국회에서 야당 최초, 호남 출신으로 34년 만에 국가 SOC를 총괄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맡아 지역균형발전을 중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 최대의 실정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예산낭비, 비자금 형성, 담합비리, 안전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증을 이끌어 냈으며, ‘경쟁도입’이라는 명분으로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던 KTX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장 취임부터 공공성 저하 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무산시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국민생활의 터전인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19대 국회 1차년도 국회 헌정대상의 뜻 깊은 수상은 정치입문의 초심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는 것만이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치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최봉홍입니다.

한 해 동안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저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 개원 1주년을 맞아 ‘국회헌정대상’에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19대 국회에 등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과제는 중간착취 없는 노동시장 구현을 통한 경제민주화와 노동기본권 확립, 그리고 환경복지 실현이었습니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크고 작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생안정을 위한 노동 및 환경 법안 발의와 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항상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으로 성실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해 온 것을 감사하게도 높이 평가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수상을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다시금 돌아보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며, 앞으로 더욱 충실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국민여러분들을 자주 뵈고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다시 한 번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국민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률소비자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건승하십시오.

2013.06.18.

국회의원 최 봉 홍

[수상소감 - 제19대 1차년도 국회헌정대상 수상]

국회의원 함진규(새누리당 · 경기도흥남)

국회의원으로서 정신없이 달려온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제19대 1차년도 국회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하여 제19대 국회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주신 연인원 2,716명에 달하는 모니터위원회 국민 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매체의 보급과 발달을 통하여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꾸준한 입법부 감시 활동은 나날이 높아져가는 국민의 기대에 국회가 부응하도록 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매우 의미가 깊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것은 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잘 견제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수상은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를 더욱 잘 감시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처음 국회의원에 출사표를 던지며 저는 지역구의 현안을 해결함은 물론 국민이 열망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다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다시 한번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늘 성원해주시는 모든 분께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뜻을 법과 제도로 바로 이뤄야

새누리당 국회의원 홍 문 표(충남 예산군·홍성군)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국회 헌정대상을 수상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은 앞으로 더욱 더 국민의 뜻을 살피, 국민의 대표로서 법과 제도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이 신명나는 세상을 만들라는 엄중한 지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대의정치를 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책정을 통해 국가와 국민, 더 나아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도 감시, 비판함으로써 국가의 모든 분야가 언제나 생동감 있고 활력 있게 움직이며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책무이자, 사명입니다.

○이에 19대 국회 1차년도에 국회헌정대상을 수상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면서도,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는 무거운 책임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만족하지 않고, 개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와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한 입법, 제도마련, 예산수립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홍영표입니다.

19대 국회의원으로 일하게 된지도 어느덧 1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으면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60세 정년연장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정년연장에 관해 실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법 통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외에도 통상임금 산정기준,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보호, 4대강사업 검증, 수도권매립지 기한연장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환노위에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국민의 실생활에 다가가겠습니다.

이번 국회헌정대상은 상임위 활동 뿐 아니라 본회의 출·재석현황, 법안 발의 등 다방면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진만큼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NGO 모니터단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신데 이어 '국회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되어 어느 때보다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주신 상은 칭찬보다는 격려의 의미로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 감시 뿐 아니라 대안제시를 위해 더욱 겸손한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가정책과 법안표결 참여는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책무이며, 의안처리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책임을 저야 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국회헌정대상' 시상을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던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헌정대상 수상 소감]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홍일표입니다.

먼저 19대 국회 첫 해 의정활동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수여하는 ‘헌정대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숙과 의회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항상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들께서 제게 부여한 소명에 부응했는지 뒤돌아보고, 최선을 다해 그 뜻을 받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선의원으로서 19대 국회 첫해에 새누리당 대변인, 원내대변인 등을 맡아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정책을 알려왔습니다. 또 야당과 국민들과는 화합과 소통의 정치를 펴면서도, 당내에서는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정치를 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응원해주시는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성장과 고용을 늘리는 신성장산업 육성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회에 제출된 여·야의 20여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여·야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 보호와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타결될 수 있도록 협상을 주도한 결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강화된 영업규제와 사전입점예고제, 상권영향평가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제도 등의 방안이 담긴 통합된 대안을 마련하였고, 올해 1월 1일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 인권 보호와 약자 보호를 위해 힘을 보태는 것이 제 정치의 목표입니다. 국회 인권포럼 책임연구위원을 맡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위한 정책 입안에 주력함은 물론 북한 주민의 인권, 난민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역을 다니다보면 주민들께서 장사가 안 된다거나, 취업이 어렵다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이 더 많이 정책에 반영되어 민생이 나아지는 것이 정치의 제일 큰 임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됩니다.

이번 ‘헌정대상’ 수상은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에 대한 격려와 신뢰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겨, 국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올곧은 정치를 해왔는지,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돌이켜보며 각오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